

제17회 목포문학상
당 선 작 발 표



목 포 시

제17회 목포문학상 당선작

구분		부문	당선자	지역	작품명	상금
박화성 소설상		장편 소설	윤신우	경기도 광주시	『0시의 새』	5천만원
목 포 작 가 상	본상	시	김인순	전남 무안군	『오늘,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6백만원
	작품상	아동 문학	이봉희	경기도 고양시	「악당은 인기 폭발」	4백만원

□ 작품 접수 현황

- 분 야 : 박화성소설상(장편소설, 전국), 목포작가상(전장르, 목포연고)
- 접수기간 : '25. 5. 1. ~ 5. 30.
- 접수현황 : 223명(박화성소설상 137, 목포작가상 86) (단위:명)

구 분	계		시	소 설	희 곡	평 론	수 필	아동 문학
계	223명		37명	156명	2명	0명	11명	17명
박화성소설상 (전국)	137명		-	137	-	-	-	-
목 포 작가상 (목 포 출신)	86명	본 상(22)	13	5	-	-	-	4
		작품상(64)	24	14	2	-	11	13
	소 계		37	19	2	-	11	17

2025. 8. 26.

목 포 문 학 상 운 영 위 원 회



제17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명단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제17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부 문	성 명	약 력
박화성 소설상 (장편 소설)	이소	· 現 문학과 사회 편집동인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강 · 비평 앤솔리지 『크리티컬 포인트』 (문학동네, 2024)
	이수형	· 現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비평집 『문학, 잉여의 몫』 (문학과지성사, 2012) · 인문서 『감정을 수행하다』 (강, 2021)
	정용준	· 現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문지문학상, 젊은작가상, 황순원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수상 ·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2020) · 단편집 『가나』 (문학과지성사, 2011)
	천운영	· 한국일보문학상, 김현문학패 수상 · 『불가능한 동화』 등 해외 수출 · 『계속 쓰기』 『상실과 발견』 등 번역 · 장편소설 『불가능한 동화』 (문학과지성사, 2013) · 단편집 『연대기』 (문학과지성사, 2019)
	한유주	· 한국일보문학상, 신동엽창작상, 올해의예술상 수상 · 장편소설 『생강』 (창비, 2011) · 단편집 『바늘』 (창비, 2001)

부 문	분 야	성 명	약 력
목포 작가상 (본 상 작품상)	시 시조	임동확	· 1987, 『매장시편』 등단 · 前 한신대문창과 교수, 前 하동천승세학회 회장, 범대순시인 기념사업회 이사장 ·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운주사 가는 길』, 『벽을 문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 다수
		이송희	· 2003,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 제20회 고산문학대상, 제20회 오늘의 시조문학상 수상 · 2020~2023, 문체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 · 저서 『내 말을 밀고 가면 너의 말이 따라오고』, 『현대시와 인지시학』, 『눈물로 읽는 사서함』 등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아동문학	이계홍	· 1974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 등단 · 동아일보 문화부 체육부기자 및 문화부 차장 등 ·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 · 『틈만 나면 자살하는 남자』, 『비껴앓은 남자』, 『밀천』, 『서울노마드』 등 다수
		송지현	· 2013,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 2021, 제 6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 2022, 제55회 한국일보문학상 · 작품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동해생활』 등
		김영학	· 문학박사,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재직 · 前 한국드라마학회 회장 · 1998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당선 · 2004 무등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심사위원 · 작품집 『나는 흥도로 간다』, 『가출』 등
		이정록	· 1989 대전일보, 1993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등단 · 풀꽃문학상, 천상병동심상, 박재삼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김달진 문학상, 김수영문학상 · 『그럴 때가 있다』, 『동심언어사전』, 『시인의 서랍』, 『콧구멍만 바쁘다』, 『대단한 단추들』 등

제17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목 포 작 가 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 목포작가상 심사평

심사위원장 임동환

심사위원 김영학, 송지현, 이계홍, 이송희, 이정록

2025년 제17회 목포문학상 공모에 본상은 22명(시·시조 부문 13명, 소설 부문 5명, 아동문학 부문 4명), 작품상은 64명(시·시조 부문 24명, 소설 부문 14명, 희곡 부문 2명, 수필 부문 11명, 아동문학 부문 13명)이 응모하였습니다. 본상과 작품상 모두 각 부문 심사위원들이 1차로 검토한 작품을 최종심에 올려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본상 부문에서 최종심에 거론된 작품집은 시·시조 부문의 『오늘,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소설 부문의 『미친 말』, 아동문학 부문의 『뿔깡』이었습니다. 『오늘,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는 일상적인 담론을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로 살아온 작가가 오늘날 교단의 현실과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진솔하게 풀어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문체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속에서 문학의 진정성이 드러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소재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성과 시대성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려는 작가의 시도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미친 말』은 탄탄한 구성과 뛰어난 문장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정확한 묘사를 통해 삶의 현실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주마를 화자로 삼은 독특한 스토리텔링은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내며, 서사의 힘과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완성도는 소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문학 부문에서 오랜 시간 심사자의 손에 머문 작품집은 『뿔깡』이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혜가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독자의 성장관을 은은하게 자극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른 작품성과 일관된 구성 또한 주목되었습니다.

세 권의 작품집 모두 빛나는 개성과 높은 완성도를 지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시의성과 시대성을 문학적 성취로 풀어낸 작품들이 고르게 인상적이었으며, 각기 다른 색채로 동시대를 사유하는 깊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 본상 수상작으로는 시집 『오늘, 너에게서 희망을 보았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일상 속 고단함, 사회적 소외, 관계의 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사의 시선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포착되는 작은 온기와 희망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데 탁월한 감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모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작품상 부문에서 최종까지 거론된 작품은 시·시조 부문의 「크레파스」, 소설 부문의 「외로움엔 타이레놀」, 아동문학 부문의 「악당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크레파스」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깊이 있게 포착한 서정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로움엔 타이레놀」은 감각적인 구성과 유쾌하고 발랄한 문체로 초단편 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짧은 감각으로 새로운 장면을 이끌어 가는 힘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악당은 인기 폭발」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흐르는 명랑한 기운이 독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연극’을 매개로 삶의 관계를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성장해 가는 서사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큰 갈등 없이도 문학적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확보한 점이 특히 주목되었습니다. 한편, 희곡 부문은 장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수필 부문은 소재의 소소함에 비해 문학적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품상 역시 긴 논의 끝에 동화 「악당은 인기 폭발」을 선정하였습니다. 길고 짧은 문장의 호흡을 자유롭게 오가며 이야기를 경쾌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돋보였고, 문학과 재미를 고르게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학상은 작품의 완성도와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독자로서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일정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문학이 놓인 맥락에 귀 기울이며, 단일한 시선으로 재단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작품의 숨결을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문학은 줄 세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길을 묻고 나아가는 동행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이란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확장되는 예술이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번 심사가 문학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모색해 본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작품에 담긴 진심과 가능성이 충분히 빛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학의 여정 속에서 그 빛을 믿고, 계속 써나가기길 응원하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7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박화성소설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박화성소설상

심 사 경 위

이수형(문학평론가)————— 11

심 사 평

이소(문학평론가)————— 12

이수형(문학평론가)————— 13

정용준(소설가)————— 14

천운영(소설가)————— 15

한유주(소설가)————— 16

목포시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학과지성사가 후원하는 박화성 소설상은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공모에서 개편되어 지난 2023년에 첫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올해 2025년 박화성 소설상 심사는 5월 한 달간의 응모 기간을 통해 총 137편의 작품이 접수 마감된 직후 본격적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소설가 정용준, 천운영, 한유주와 평론가 이소, 이수형은 6월 초부터 응모작을 나누어 읽으면서 본심에 올릴 작품을 골라 나갔다. 약 3주의 기간을 거쳐 6월 22일에 본심 대상작을 확정했으며, 다시 2주에 걸쳐 대상작을 숙독한 끝에 7월 7일 문학과지성사 회의실에서 본심 독회를 진행하였다. 응모작의 전체적인 경향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아 여성이나 소수자의 서사로부터 구도(求道)적인 인생 유전을 이야기한 작품, 역사적 소재나 SF적 소재를 다룬 작품, 지역성을 띤 작품 등 말 그대로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심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0시의 새」 「나무는 곧지 않다」 「불씨 찾기」 「엘리제를 위하여」 「은하계 만년과장 박해연」 「씨클」 「해독할 수 없는」 총 7편이었다(제목 가나다순). 심사위원들 간에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언급되는 작품의 범위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순탄했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장점이 있으므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로 할 것을 동의했던 작품이 어느새 다시 언급되는 일이 몇 번 반복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씨 찾기」와 「해독할 수 없는」이 몇 차례 재소환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0시의 새」와 「씨클」으로 심사위원들의 주의가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투포환 선수 출신 특수교사의 학교생활을 다룬 「씨클」은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작품으로 끝까지 유쾌하게 읽을 수 있었다. 「0시의 새」 역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고 긴장된 눈길을 땔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작품은 스토리나 분위기가 양극성이라고 할 만큼 달랐고, 그 때문에 공통된 기준으로 비교하기 쉽지 않아 장단점이 엇갈렸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심사위원들은 좀 더 진지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박화성 소설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0시의 새」의 작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수상의 기회를 다음으로 이월한 응모자들에게도 격려와 함께 건필을 기원한다.

이 소(문학평론가)

『0시의 새』는 독자에게 밀도 있는 독서 경험과 다층적인 해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기이한 기시감과 서늘한 위화감 속에서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진 두 인물이 전력을 다해 세계의 수수께끼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은, 어느새 나로 하여금 심사자의 위치를 벗어나 독자의 자리에서 소설에 깊이 몰입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서사적 힘을 보여주었다.

삶은 온갖 우연의 씨실과 날실로 엮여 있고 과학은 이를 필연이라는 의미망 속에 가두려 하지만, 소설은 이러한 합리화의 기제를 넘어선 광대한 세계의 역장을 제시한다. 이 세계는 우연과 필연의 이분법을 초과하는 거대한 확률의 지층 위, 즉 평행우주의 물결 위를 유동하며 존재한다. 소설은, 이토록 압도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우주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과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가너린 새의 형상으로 도래한 은총과 그 은총의 날갯짓을 헛되이 놓치지 않으려는 미약한 인간의 미약하지만은 않은 자유의지임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문장의 호흡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관습적인 묘사가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은유적 응답으로도, 생태적 위기를 향한 윤리적 상상으로도 읽히는 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미학적 성취는 충분히 인상적이다. 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이수형(문학평론가)

「은하계 만년과장 박해연」은 즐겁고 행복한 소설이다. 만년과장이므로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한 기업체의 직원 박해연이 꿈을 찾아 현실 너머 은하계로의 탈출을 꾀한다는 줄거리는 참신하지는 않지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결말에 이르러 갈등이 다소 안이하게 혹은 일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 제기는 타당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비극이 너무 많으며 이 소설의 장르는 희극이다.

「해독할 수 없는」은 제목의 ‘해독’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강한 인상을 주는 소설이다. 지난 세기의 오래된 기억을 복기하는 주인공에게 과거의 체험이란 ‘풀리지 않는=해독(解毒/解讀)할 수 없는’ 삶의 비밀일 것이다. 그런데 역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작품이 역사적 시공간의 제시에 있어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씨클」은 웃음과 감동을 함께 주는 소설이다. 소재나 주제도 지금의 현실에서 긴요한 부분을 직시하고 있으며, 소설로 형상화하는 능력도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새삼 떠올리게 되었다. 이제는 지나치게 고색창연한 느낌이 날 법도 하지만 장편소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 총체성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도 있으리라는 아쉬움을 끝내 지우기 어렵다.

「0시의 새」는 평행 우주와 소행성 충돌이 등장하는 일종의 SF소설이기도 하고 인간학이나 형이상학에 관한 관념적 소설이기도 하다. 좀 신랄하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도 약간씩은 미흡함을 노출하는 소설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은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 뒤에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려는 기자와 또 비슷한 연령대의 천문연구소의 여성 연구원,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과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온 정체불명의 캐릭터들, 게다가 일종의 신적 존재로 인식되는 새(그렇다. 날개를 퍼덕이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무엇보다 알을 낳고 품는 조류 말이다)까지, 「0시의 새」에는 많은 인물들의 복잡한 사건들이 얹혀 있다. 그 복잡한 이야기의 배경이 좁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잠재된 가능성이 ‘알을 깨고’ 활짝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다른 응모자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정용준(소설가)

본심에서 인상깊게 읽은 소설은 <해독할 수 없는> <씨클> <0시의 새>였다. 세편 소설은 양식과 스타일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해독할 수 없는>은 소위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서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 두 인물의 삶을 조명하면서도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요한 역사의 흐름이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매력이 있었고 몰랐던 사실과 인식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 지점을 어떻게 봐야할지 애매했고 다루는 사실을 통해 작가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다. 무엇을 사실로 다룰 것인지, 무엇을 픽션화할 것인지, 팩트와 픽션이 이야기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소설이 더 힘있고 분명해질 것 같다.

<씨클>의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 재미는 무척 익숙한 것이었다. 그 익숙함은 이야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이야기적 새로움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스토리와 인물들이 보여지는 그대로만 기술되어 있어 여지와 여운이 없어 아쉬웠다. 사람에게 외면과 내면이 있듯 이야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이면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소재도 신선하고 인물들도 개성이 넘치는데 전개되는 흐름이 스포츠 이야기의 전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았다.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소설은 다른 질감과 입체를 얻게 될 것이다.

<0시의 새>는 다양한 매력이 뒤섞인 작품이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 같다가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표현하는 문장과 표현은 감성적이고 현학적이었다. 처음엔 그 낙차가 어색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일단 이야기의 흐름이 안정적이었고 중요한 지점에서 인상적이고 탄력적인 표현으로 긴장을 부여하는 힘이 있었다. 또한 인물의 행동과 내면을 따라가는 동안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입하고 동의할 수 있던 지점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스타일과 장단이 각각 다른 작품들 중 무엇을 수상작으로 정할지 고심했지만 결국 <0시의 새>를 선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게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분명했고 미학적 욕망의 추구가 크게 작용했다. 수상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소설을 써주길 부탁하는 마음이다.

천운영(소설가)

예심에서부터 눈여겨본 작품은 <씨클>이었다. 특수학교를 배경으로 전직 투포환 선수였던 주인공이 장애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 뻔한 성장소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의 세목들이 힘이 있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이야기랄까. 다정한 눈길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해독할 수 없는>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파도 같았다. 해변이 아니라 절벽 위에서 밀려들어 오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디로 가 닿으려나. 어디까지 가려나. 그곳에 무엇이 있으려나.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마침내 가 닿은 해변이 공허했다. 그 오랜 시간 파도친 자리에 해독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다니. 그 지독한 삶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주먹을 꼭 쥐고 읽다가 맥이 확 풀려버리는.

<0시의 새>는 새벽 어스름에 빛을 쫓아가는 느낌의 소설이었다. 미스터리. 빛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사방이 환해져 마침내 아침이 왔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헤아리게 되는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니 저절로 그리되었다. 태양 빛에 가려진 별들의 행방을 찾아보게 되는 이야기. 아 저기 어디쯤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겠구나 하다가 문득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 그 스میم이 참 좋았다.

한유주(소설가)

이번 박화성문학상 심사에 임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적 배경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인공지능을 본격적인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실제에 근접했건 아니건 역사적 사실이 현재와 밀접하게 맞닿아 보다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작품들이 다소 적었던 것, 인공지능을 다루는 작품들은 대개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본심에 올라온 장편소설들 중에서 눈길이 갔던 작품들은 <해독할 수 없는>과 <씨클>, 그리고 <0시의 새>의 총 3편이었다.

<해독할 수 없는>은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각기 조선과 중국 국적을 지닌 두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매력적이었다.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아름다운 문체도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씨클>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나 불의의 사고로 원래 꿈을 좇지 못하게 된 주인공의 힘을 빌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숨씨가 훌륭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허구적 인물로서의 매력을 빠지지 않고 발산한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소설적 깊이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0시의 새>는 첫인상과는 사뭇 다르게 읽어나갈수록 빠져드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형언할 수 없는 사건들을 세심히 주목하며 하나씩 설명해 보려는 작가의 의지가 마음을 움직였다. 다소 추상적인 언어 운용이 최종적인 결정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이 소설이 독자를 사로잡는 힘에 고개를 숙였다. 작가께서 앞으로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많이 쓰시기를 멀리서 응원한다.